

다니엘서 - 번호 140

마지막 약속: 여호와의 날 이전의 엘리야의 역할을 드러내다

Jeff Pippenger

2024-03-16

구약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혹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4-5.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앞서 오는 엘리야는 개별적인 사자이며, 또한 그 사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와 관련된 운동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는 에녹과 엘리야가 상징하듯, 죽음을 맛보지 않는 14만 4천 명이다. 그들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앞에서 기치로 높이 세워질 자들이다.

말세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으로도 예표되었지만, 요한은 14만 4천을 대표하지 않았다. 그는 그 운동에 합류하여 말세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대표했는데, 그들은 곧 닥칠 일요일 법령으로 시작되어 미가엘이 일어서고 아무도 도울 자 없이 교황권이 끝을 맞을 때에 끝나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시간에 교황권에 의해 살해된다.

엘리야는 갈멜 산의 사건으로, 요한은 헤롯의 연회장의 사건으로 상징된다. 그 두 역사적 증인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의 두 부류를 식별해 준다.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는 갈멜 산과 헤롯의 생일 잔치에 각각 대응한다. 그 두 예언적 선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일곱 머리에 속한 여덟째 머리의 구성 요소를 신중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기준점을 제공하며, 또한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마지막 국면에서 일곱에 속한 여덟째인 마지막 대통령이 어떻게 그리고 왜 미국의 강력한 독재자가 되는지를 분명히 할 만큼 충분한 예언적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일요일 법령 때 삼중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교황권 제도를 강제하는 법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손을 깊은 간격 너머로 뻗어 로마 세력의 손을 붙잡고, 심연을 넘어 영매주의와 손을 맞잡게 되며,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서 우리나라가 개신교적이며 공화정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배척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을 퍼뜨리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기이한 활동의 때가 이르렀으며 끝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 Testimonies, volume 5, 451.

그러나 이 예시에는 순서가 있으며, 그 순서가 바로 영감된 말씀의 주제다. 그것은 ‘칙령’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단일 사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사건들의 연속이다. '칙령'에서 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기를 그치게 되며, 이는 그 지점에서 일곱째 왕국이 시작됨을 뜻한다. 그러나 일곱째 왕국은 자기 왕국을 짐승에게 주기로 동의한다. 거짓 선지자가 패배하면 용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즉시 자기 왕국의 절반을 짐승에게 준다.

갈멜 산에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이 있었고,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 산으로 내게 모으고,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수풀의 선지자 사백 명도 모으라. 열왕기상 18:19.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뿐 아니라 참된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규정한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선지자는 오직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사백오십 명이라. 열왕기상 18:22.

엘리야의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소멸되자, 그는 이에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그들을 붙잡자,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내려가 거기서 죽였다. 열왕기상 18:40.

바알은 거짓된 남성 신이었고, 사마리아 성에서 여전히 이세벨과 함께 지내며 그녀의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던 수풀의 선지자 사백 명은 여신 아스다롯의 선지자들이었다. 그 여신은 엘리야의 갈멜산 선지자 학살에서 살아남았다.

산 위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로 엎드렸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눈부시고 소멸하는 불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자신들이 배교와 죄 가운데 소멸될까 두려워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아래 평야까지 섬뜩할 만큼 분명하게 메아리쳤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깨어나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욕되게 했는지를 보았다. 그들 안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한 분노가 타올랐다. 아합과 바알의 제사장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다시금 놀라운 명령의 말로 엘리야의 음성이 백성에게 들렸다.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백성은 엘리야의 말에 곧바로 순종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 기손 시내로 끌고 갔고, 거기서 엘리야는 자기 손으로 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였다. Review and Herald, 1873년 10월 7일.

갈멜산은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법을 표상한다. 그때 엘리야로 표상된 십사만 사천의 기치가 높이 들린다. 그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세벨의 음식을 먹고 있는 가짜 개신교의 뿔과 대조를 이루며, 참된 개신교의 뿔이 뚜렷이 드러난다. 갈멜산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국가 둘 다의 뿔이 되어 버렸던 공화주의의 뿔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

그곳에서 그 끝에 이른다. 그때 남는 것은 아합과 그의 열갈래의 나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숨어 배도한 개신교도들과 함께 식사해 온 이세벨이다. 여섯째 왕국은 끝났고, 그때 비가 한량 없이 내린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세레 요한으로 표상되는 엘리야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구원이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기만의 춤을 추어 보일 바알의 선지자들은 없고, 오직 이세벨의 딸 살로메만 있을 뿐이다. 헤롯과 그의 왕실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의 생일은 또한 일요일 법령을 상징하며, 머지않아 다가올 일요일 법령보다 훨씬 이전인 2001년 9월 11일에 모든 민족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가 힘찬 음성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소굴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우리의가 되었도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18:1-3

이 세 구절은 뉴욕의 거대한 건물들, 곧 쌍둥이 빌딩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무너졌을 때 성취되었다.

“이제 내가 뉴욕이 해일에 휩쓸려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는 말이 나오는가? 나는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큰 건물들이 층층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크게 흔드실 때에 얼마나 무서운 장면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때에 요한계시록 18:1-3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전체는 땅 위에 닥쳐올 일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뉴욕에 닥쳐올 일에 관해서는 특별히 받은 빛이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언젠가 그곳의 큰 건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돌이키고 뒤엎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게 주어진 빛으로 볼 때, 세상에는 멸망이 있다. 주께서 한 말씀만 하시고, 그분의 능하신 권능이 한 번 닿기만 하여도,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장면들이 일어날 것이다.” Review and Herald, July 5, 1906.

곧 임할 주일법은 요한계시록 18장의 둘째 음성으로 상징되며, 아합의 갈멜산과 헤롯의 생일 잔치를 상징한다. 헤로디아, 곧 이세벨은 갈멜산에 이세벨이 없었던 것처럼 헤롯의 술 취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 주일법이 올 때까지, 그녀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인 땅의 짐승의 통치가 상징적인 70년 동안 이어지는 동안 잊혀져 왔다. 이세벨이 1798년과 1799년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 여섯째 왕국(미국)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서의 시대를 시작했다. 여섯째 왕국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돌아와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음행한다.

그녀의 음행과 포도주의 노래는 2001년 9월 11일에 예언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단지 준비 기간에 불과했으며, 이는 508년부터 그녀가 처음으로 왕좌에 오른 538년까지의 30년으로 상징되어 왔다. 엘리야의 손에 의해 여섯째 왕국이 죽임을 당하는 주일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녀는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다. 그때 세레 요한은 그녀의 감옥에 갇혀 구원이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헤롯과 그의 귀족 동료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고, 헤로디아(이세벨)의 딸 살로메가 지극히 유혹적인 춤을 추자, 헤롯은 음욕적이고 근친상간적인 욕망을 드러냈다. 그는 의붓딸의 성적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녀에게 자신의 왕국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마침 적당한 날이 되어 헤롯이 자기 생일에 그의 귀인들과 고위 장교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주겠다 하였다. 또한 그녀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하였다. 그러자 그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그녀가 곧 서둘러 왕에게 들어가 청하여 이르되, 지금 당장 쟁반에 담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은 심히 근심하였으나, 자기의 맹세와 그와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녀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였다. 왕이 곧 사형 집행인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니, 그가 가서 옥에서 그의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마가복음 6:21-28.

요한계시록 18장의 첫 번째 음성은 2001년 9월 11일에 들렸고, 둘째 음성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에 들린다.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역사에서, 2001년의 첫 음성은 그분이 하늘의 참된 떡이므로 제자들에게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 그 기간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요한복음 여섯 장, 예순여섯 절에서 그분을 떠난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로 끝났다. 그 역사는 음식에 관한 시험과 함께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교황의 이름의 수, 곧 여섯, 여섯, 여섯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짐승의 표가 강제로 시행되는 데서 끝났다. 갈릴리는 '전환점'을 뜻하며, 2001년 9월 11일은 예언적 '전환점'(갈릴리)이었고, 헤롯의 생일 잔치는 갈릴리의 지도자들과 함께였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시작하는 음성과 끝나는 음성은 모두 전환점인 갈릴리로 표상된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제나 하시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이에 주의를 환기한다. 복음이 에덴에서 아담에게 처음 선포된 이래 줄곧 그래 왔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역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나라들과 교회의 역사에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들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여러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를 위한 빛이 주어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적 진보가 있고, 거절하면 영적 쇠퇴와 파선이 뒤따른다. 주께서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공세적 사역이 과거에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장차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탄의 세력들이 그들의 마지막 놀라운 운동을 벌일 마지막 투쟁에 이르기까지 밝혀 주셨다." Bible Echo, 1895년 8월 26일.

2001년의 갈릴리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의 갈릴리는 늦은 비의 빛이 언제 부어지는지를 밝혀 준다. 2001년에는 그것이 한정된 부어 주심이었지만, 둘째 음성 때에는 한량없이 부어진다. 이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있었던 엄청난

부어 주심으로 표상되며, 그 일은 헤롯의 생일잔치에서 일어났다. 헤롯의 생일은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의 탄생을 지목하는데, 그것은 앞선 왕국의 죽음에 즉시 뒤따른다. 미국은 다섯째 왕국이 죽은 1798년에 통치하기 시작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의 죽음 때에 일곱째 왕국의 생일이 도래했다. 그 일곱째 왕국은 아합의 열 갈래의 북방 왕국과, 이교 로마의 열 갈래 북방 왕국의 대표자인 헤롯으로 표상된다.

네가 본 그 짐승의 열 뿔은 음녀를 미워하여 그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한 뜻을 품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뜻을 같이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넘겨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16-18.

헤롯은 살로메에게 한 맹세를 이행하여 요한의 머리를 주기로 동의한다. 그가 한 맹세는 자기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유엔의 열 왕들은 음녀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곱째 왕국을 앞선 일곱 머리들에 속한 여덟째 머리에게 넘기기로 동의한다. 그들은 전 세계 국가와 그녀의 전 세계 교회의 결합을 전제로 한 왕국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영국식 결혼이 아니라 라틴식 결혼이다. 그들의 결혼은 "여인"이 "왕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라틴식 결혼에서는 가문이 남자의 성이 아니라 여자의 성을 유지하며, 이 이중적 결혼의 이름은 예언적 서사에서 중요한 요소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스스로 적그리스도의 표를 취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곧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는 용으로 표상되어 있다." Testimonies to Ministers, 38.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보다 높임을 받을 것이요 모든 나라가 그리로 몰려들리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나올 것임이라. ... 그 날에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의복을 입으리니, 다만 네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소서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 중 피한 자들에게는 영화롭고 아름다우리니,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불사르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실 때에. 이사야 2:1-3, 4:1-4.